

##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김 은 숙\* · 고 무 석\*\* · 정 난 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n Food and Nutrition Se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Eun-Sook\* · Koh, Moo-Seok\*\* · Jung, Lan-H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me Economics Educati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to offer a basic data for setting up new curriculum and preparing for effective instruction and education methode on food and nutrition section by researching & analyzing the degree of necessity, difficulty and utilization in actual life of food and nutrition section which requires a close relation with actual life and home economics for the second grade students who studied home economics in the first grade in a middle school.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A highest number of students(38.9%) responded that 'they learned skills required in home life such as cooking, laundry and childcare' on a question of home economics recognition and the next highest percentage of students(27.5%) responded 'they learned of healthy life and correct human building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a food and nutrition section, the highest percentage of students(38.8%) responded that 'they learned the knowledge and principle of food nutrition for the improvement of a food and nutrition', and the next highest percentage of students(30.7%) responded 'they learned practical skills required in actual life'.

The meal and nutrition of juvenile, and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cooking was highly ranked in order for the necessity on the food and nutrition section, girl students accounting for higher percentage than boys in overall food and nutrition section and all areas. A nutrition of juvenile, a meal of juvenile, and the principle of cooking and cooking practice was middle ranked in order for the difficulty of the food and nutrition section. Girl students recognized overall food and nutrition section more difficult and also they recognized a nutrition of

juvenile and a meal of juvenile more difficult than boy students, but boy students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ooking and cooking practice more difficult than girls. On the practical use of the food and nutrition section in actual life, a meal of juvenile, the principle of cooking and cooking practice, nutrition of juvenile was low ranked in order. Boy students practically used overall food and nutrition section including a meal of juvenile and nutrition of juvenile in detail with high percentage, and girl students practically used the principle of cooking and cooking practice with high percentage.

Regarding interrelation of the degree of necessity, difficulty and utilization on food and nutrition section, as the degree of necessity was high on food and nutrition, the degree of practice was high in all the areas, and as respondents recognized food and nutrition section difficult, they practically used a food and nutrition section at low percentage.

주제어(Key Words) :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식생활 단원(food and nutrition section), 인식(recognition), 활용도(utilization)

## I. 서론

가정과 교육의 목적은 인간 생활의 기본인 가정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으며, 학생 개개인이 가정과 교육의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습하여 그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함으로써 생활의 향상이 이루어질 때 그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1997). 그 중에서도 중학교 식생활 단원의 교육은 정확한 영양지식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지도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학생은 신체적 성장과 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영양 관리와 식품의 선택, 식사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중·고동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청소년들의 식생활에서 불규칙한 식사가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의 과다섭취, 편식, 과식, 결식, 질적으로 떨어지는 식사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이윤희, 1997). 따라서 청소년기의 확고한 가치관과 식품에 대한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쳐 성장한 후 질병 발생 뿐 아니라, 심리적 자아의 확립과 정서적 안정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식행동과 식습관은 일생을 통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안계수, 신동순, 2001).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영양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는 학교의 가정수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화영 1984, 안혜경 1994, 조정미 1995). 또한 중학교 전 교과과정의 내용분석을 통해 가정교과에서 식생활 내용이 큰 비중으로 교육된다고 연구된 바도 있으므로(이영숙, 1999), 청소년기인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가정 교과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 개개인이 식생활 단원의 교육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습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식생활의 향상을 꾀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최선정,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가정교과와 식생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난이도, 실생활에서의 활용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가정교과 인식, 식생활 단원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 남녀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난이도, 활용도의 일반적 경향과 변인(성별, 가정교과 인식, 식생활 단원 인식)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3.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및 난이도와 활용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

식생활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양은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체조직을 구성하며 간접적으로는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황은선, 1992). 영양섭취는 생명유지와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올바른 식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학교 연령기인 만 13~15세는 신체적·심리적·생리적으로 급속한 성장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일생동안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조기 등교로 인한 결식, 불규칙한 식사시간, 인스턴트식품과 가공식품의 범람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보다 간식, 편식 등의 식습관이 생기고, 특히 보다 나은 식습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에게 혼돈과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다(정혜경 1985, 홍순정 1984).

한편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중과다 또는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식행동 문제는 결식, 편식, 패스트푸드의 선호, 고열량 식품 섭취 등이 지적되었고 전반적으로 과일, 육류, 가공품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반면 채소에 대한 기호도가 낮았다(안계수 등 2001). 바람직한 식습관의 변화는 사춘기 이전에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화되기 어렵다. 청소년기는 확고한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때 형성된 식품에 대한 태도는 성인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병 발생 뿐 아니라, 심리적 자아의 확립과 정서적 안정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식생활과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안계수 등 2001).

또한 청소년기는 심리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보매체, 광고,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더 나아가 날씬해지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압력 하에 신체상에 대하여 주관적 기준에 따라 왜곡된 인식을 하고 체중조절을 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비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날씬함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영양소 필요량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과 식사섭취로 영양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노희경, 2000).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식행동과 식습관은 성장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하여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최선정, 2002).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중 가정교과 수업을 통해 영양 교육과 잘못된 식생활 개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서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여 전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지닐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선지현, 1999).

### 2. 중학교 식생활 단원의 교육내용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식생활 교육 내용의 변천과정을 홍은정(1996), 허경숙(2000), 최선정(2002), 이윤화(2002) 등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기별로 나누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차 교육과정기(1956~1965년)는 식품과 영양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부엌설비, 연료 절약, 집안 연모 손질 등과 같은 실질적인 부엌일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생활의 전문적 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너무 편중되었다.

제 2차 교육과정기(1966~1971년)는 기초적인 지식과 원리보다는 식생활의 과학적인 이론을 실제에 부합시킬 수 있는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다소 전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식생활 개선, 식품의 저장과 가공, 조리용 열원, 부엌의 연모 다루기, 식사예절

및 초대, 음식 만들기, 식생활 관리, 위생적인 식생활, 영양과 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 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기(1972~1978년)는 제 3차 교육과정기와 함께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로, 건강과 식생활 영역에서는 6대 영양소의 성질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영양을 다루었고, 식품 조리 영역에서는 조리시 주의점과 어린이, 노인 등 대상별 음식 만들기가 주를 이루었다. 식품가공 및 관리영역은 위생과 조리용 기구와 기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식생활 문화 영역은 식생활 개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차 교육과정기(1979~1983년)는 식생활 단원의 교육내용이 하나의 대단원 속에 통합되어 단원 분류가 용이하고 체계화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기의 영양문제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작성을 통해 영양학과 식품학에 기초를 둔 식생활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하게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4~1988년)는 학생 스스로 자기의 식사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며 상처림, 식사예절의 태도를 터득하게 하였고, 조리시의 영양가, 향미, 색깔의 변화 등을 미리 알고 조리법의 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리의 이론적인 측면들이 전과 달리 편성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9~1994년)는 전체 단원 수와 식생활 단원의 수가 축소되었으며, 영양과 식품의 조리 및 가공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식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5~2000년)는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변경되면서 배당 수업 시수의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졌다. 일상생활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소재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고 식생활에 환경문제, 자원 활용 문제를 고려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2001~현재)는 기술·산업과 가정을 구분하던 교과를 기술·가정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초 영양과 조리 지식을 강조하였고 식생활에서의 소비자 능력, 즉 식품선택과 관련된 내용, 식생활 기기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식생활 단원의 내용 체계를 비교해 보면(표 1), 중학교 1학년에 제 7차 교육과정 식생활 단원은 학습요소, 시간 배당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내용 구성 면에서 실험·실습 위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과 영양소의 기능, 함유 식품 등에 대한 지식을 익힌 후 간단한 음식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조리에 앞서 조리 중에 일어나는

〈표 1〉 제 6·7차 교육과정기의 식생활 단원 내용 체계

학 년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의 영양관리</li> <li>-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li> <li>- 기초식품군</li> <li>- 청소년기의 식습관과 영양문제</li> <li>- 조리의 기초(밥,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li> <li>- 청소년의 영양</li> <li>- 청소년의 식사</li> <li>- 조리의 기초와 실제</li> </ul>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선택과 보관</li> <li>- 식품 고르기</li> <li>- 식품의 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일부 축소되어 1, 3학년 과정에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 원리와 음식 만들기</li> <li>- 조리에 의한 식품의 변화</li> <li>- 음식 만들기</li> </ul>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관리</li> <li>- 하루 식단 작성, 식사평가</li> <li>- 상처림, 식사예절</li> <li>- 식품의 낭비와 쓰레기 문제</li> <li>- 간식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식사관리</li> <li>- 식단과 식품의 선택</li> <li>- 식사준비와 평가</li> <li>- 식사예절</li> </ul>

식품 성분의 여러 가지 변화를 실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조리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과서 구성 자체도 지식 전달에서 해보기, 실험 보고서 작성 등으로 변화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 2학년은 식생활 영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3학년으로의 연계가 매우 어렵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이 영역은 학생들에게 매일의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식품의 구입에서 조리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 과정이 반복됨을 상기하면서 식품의 선택, 다루기, 보관을 잘 하는 것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의 경제나 시간 및 노력 관리와 관련지어 보면, 식품의 선택에서 소요 품목과 분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구입하는 것,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품질이 손상되지 않게 취급·보관하는 것 등은 매우 요긴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축소되어 3학년 식사관리 단원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본적인 조리방법과 조리 중의 식품 변화에 관하여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활용되는 기본적인 반찬을 만들어 보는 일은 식품의 합리적인 이용뿐 아니라, 자신의 식사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일로써 학습할 가치가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1학년으로 일부 축소되어 포함되었다.

3학년의 경우 식생활 단원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며, 1학년 때 학습한 영양소의 특징 및 식품 구성탑, 영양 권장량 등을 토대로 식단을 작성해 보고, 음식을 만들어 보며, 상차림, 식사예절, 설거지와 뒷정리로 식생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제 6차 교육과정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2학년 과정의 식품의 선택 단원이 3학년 과정으로 옮겨져 있으며 간식 만들기가 식단의 음식 만들기로 바뀌어 진 점이다.

위와 같이 식생활 단원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얼마나 중요한 단원인가를 알 수 있으나,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에서 수업시수가 감소하면서 2학년의 식생활 단원이 제외된 점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 3.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가정교과는 가정생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를 실생활에 실천·활용하는 부분까지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실생활에 있어서 가정과 교과내용의 활용은 그 자체가 목표일 뿐 아니라 보다 나은 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이광희, 2000).

제 6차 교육과정기 이전에 연구한 결과로, 성영용(1971)은 가정과 조리 실습교육에 관한 일 연구(여자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에서 조리 실습 시간에 배운 것을 가정에서 활용하는 학생은 거의 모든 학생(약 91%)이며, 모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실습에 임한다고 하였다. 김정현(1976)은 중학교 가정과 학습지도의 현황과 문제점(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에서 실생활에 활용되는 정도는 73.9% 이상이어서 학습내용이 바람직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론보다 실습면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성희(1980)는 중학교 가정과 식생활 교육실태의 바람직한 방안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단원은 식생활 분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리실습은 대부분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배운 조리실습을 가정에서 다시 해보는 학생은 52.1%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주정숙(1982)의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조리를 간혹 특별식에 활용하고 있고, 어머니의 일을 돕는 정도에 그치며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조리과학, 조리 동작 등의 과학적인 지식과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자기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찬경(1986)은 가사와 학습내용에 대한 여중생의 관심도와 활용정도에서 가사와 학습내용의 활용정도는 생활수준이 낮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있고 차녀인 학생, 실업·가정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의 집단에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월 생활비와 학업성적은 활용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황은선(1992)은 가정과 식생활 단원 학습내용에 대한 여중생의 학습목표 성취도와 흥미도 및 실천 정도에서 식생활 단원의 학습목표에 대한 성취도는 높았지만 모든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 생활에 활용되어져야 할 가정과 학습내용이 실제로는 부분

적으로 관심도가 낮았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 6차 교육과정기 이전에는 주로 여학생을 위주로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실생활 활용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 결과는 대체로 식생활 단원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는 가지고 있으나 실생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6차 교육과정기 이후의 연구 결과로, 홍은정(1997)은 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 과목의 학습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오현주(1997)는 가정과목을 배운 후에 보다 더 균형 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품구매와 매식시에 특히 학습한 내용을 잘 활용하는 편이었으며 학교에서 조리 실습한 것을 집에서 복습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의 활용도가 남학생에 비하여 조금 더 높았다고 하였다. 신동순(1997)은 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가정 교과와 학습효과 중 내용 요소별 활용도의 가장 긍정적인 내용요소는 간단한 음식 만들거였으며 특히 전반적으로 식생활 내용 요소의 전 분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론 면에서 내용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광희(2000)는 남녀 중학생의 식생활 관리 단원에 대한 관심도 및 실행 능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영역에 걸쳐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과 성적에 따라 식생활 관리 실행능력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관심도와 실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나타난 학생의 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장되어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허경숙(2000)은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생활 단원의 인식에 따라서 도움정도, 관심도, 흥미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습내용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식생활 단원 목적 인식에 따른 활용도는 식생활 단원을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인식한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식생활 단원 목적 인식에 따른 활용도와와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난이도 인식과 활용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황인화(2001)는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 식생

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 단원 모든 영역에서 실생활 활용도가 높았고, 가정교과 및 식생활 단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흥미도와 활용도의 관계는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도, 흥미도가 실생활 활용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학생들의 필요도와 흥미도가 높을수록 실생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선정(2002)은 전북 일부지역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 요구도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에서 식생활 단원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학교 소재지별, 학교형태별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가경(2004)은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의 여중생의 중요도, 난이도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지역,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식생활 단원의 실천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 때 실천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남녀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변경되면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실생활 활용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다. 연구결과는 대체로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실생활 활용도는 높았고,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현재 기술·가정과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분석한 결과 김미숙(2005)의 선행연구에서 11종 교과서 중 지학사의 교재를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는 식생활 단원 내용의 일치성을 위해 지학사(김판옥 등, 기술·가정)의 교재를 선택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녀 공학 3개 중학교 2학년생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는 2005년 2월 14일

부터 2월 18일에 걸쳐 실시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5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여학생 340명, 남학생 250명 총 59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565부(회수율 96%)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내용이 충실한 528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학생의 성별은 여학생이 309명(58.5%), 남학생이 219명(41.5%)이고, 아버지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23명(4.4%), 40~49세가 454명(86.1%), 50세 이상이 50명(9.5%)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127명(24.1%), 40~49세가 394명(74.6%), 50세 이상이 7명(1.2%)으로 대부분이 40~49세 사이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이 31명(6.0%), 관리직 46명(9.0%), 사무직 162명(31.6%), 판매·서비스직 135명(26.3%), 생산·기능직이 139명(27.1%)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취업이 전체 대상자의 54.8%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466명(88.9%), 확대가족이 58명(11.0%)으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초등졸 이하가 8명(1.5%), 중졸 13명(2.5%), 고졸 263명(50.4%), 대졸 이상이 238명(45.6%)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졸 이하가 9명(1.7%), 중졸 16명(3.1%), 고졸 335명(64.3%), 대졸 이상이 161명(30.9%)이었다. 가족의 한달 총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29명(5.8%)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100~199만원 181명(36.5%), 200~299만원 163명(32.9%), 300만원 이상이 123명(24.8%)으로 나타났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허경숙(2000), 황인화(2001), 최선정(2002)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작성한 다음 전공 교수 및 가정과 교사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예비 조사를 한 후 문항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미흡한 점은 수정·보완하였고, 설문지는 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가정과 담당교사에게 설명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가정교과 인식 6문항, 식생활

단원 인식 6문항,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난이도 인식 각각 3문항, 식생활 단원에 대한 활용도 22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정교과 인식, 식생활 내용의 인식에 대한 문항은 5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고,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난이도, 활용도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에 대한 문항은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식생활 단원의 난이도에 대한 문항은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식생활 단원의 활용도에 대한 문항은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실생활에서의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package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성별에 따른 가정교과 및 식생활 내용의 인식 차이는  $\chi^2$  검증을 하였다. 또한 일반적 경향 및 성별, 가정교과 인식, 식생활 단원의 인식에 따른 필요도와 난이도, 활용도의 차이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의 다중 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및 난이도와 활용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를 구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 1) 가정교과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가정교과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가정교과는 '조리, 세탁,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배운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배명순(1998), 황인화(2001)의 '가정생활에 필요

한 단순한 기능습득'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나, 홍은정(1996)의 '건강한 생활 이념과 올바른 인간형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 습득'보다는 가정교과의 성격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 습득'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 $p<.05$ ) 성별에 따라 가정교과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가정교과의 중요성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한 편이다'를 합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은 308명(58.7%), '보통이다'는 186명(35.4%),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합하여 31명(5.9%)으로 나타나 이승희(1990), 이은정(1992), 홍은정(1996), 황인

〈표 2〉 가정교과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인식	내용	여학생	남학생	계	$\chi^2$	N(%)
학습내용	과학적 지식과 원리	51(16.5)	41(18.8)	92(17.5)	9.917*	
	단순한 기능 습득	134(43.4)	71(32.6)	205(38.9)		
	건강한 이념과 인간 형성	85(27.5)	60(27.5)	145(27.5)		
	문제 해결 능력	39(12.6)	46(21.1)	85(16.1)		
중요성	매우 중요하다	38(12.3)	20(9.2)	58(11.1)	16.227**	
	중요한 편이다	152(49.4)	98(45.2)	250(47.6)		
	보통이다	107(34.7)	79(36.4)	186(35.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11(3.6)	10(4.6)	21(4.0)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10(4.6)	10(1.9)		
가정생활과의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다	69(22.3)	28(12.8)	97(18.4)	21.256***	
	관계가 있다	128(41.4)	101(46.3)	229(43.5)		
	보통이다	84(27.2)	61(28.0)	145(27.5)		
	별로 관계가 없다	28(9.1)	18(8.3)	46(8.7)		
	전혀 관계가 없다	0(0)	10(4.6)	10(1.9)		
평균성적	90~100점	77(25.1)	49(22.6)	126(24.1)	4.936	
	80~89점	88(28.7)	62(28.6)	150(28.6)		
	70~79점	78(25.4)	47(21.7)	125(23.9)		
	60~69점	45(14.6)	35(16.1)	80(15.3)		
	59점 이하	19(6.2)	24(11.0)	43(8.2)		
선호도	매우 좋아한다	24(7.8)	8(3.6)	32(6.1)	24.139***	
	좋아한다	122(39.4)	67(30.6)	189(35.8)		
	보통이다	145(47.0)	121(55.2)	266(50.4)		
	싫어한다	16(5.2)	8(3.7)	24(4.5)		
	매우 싫어한다	2(0.6)	15(6.9)	17(3.2)		
선호이유	실험·실습이 많아서	54(37.0)	21(28.0)	75(34.0)	5.212	
	가정선생님이 좋고 수업을 재미있게 해서	22(15.1)	15(20.0)	37(16.7)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19(13.0)	5(6.7)	24(10.9)		
	이해하기 쉽고 부담이 없어서	33(22.6)	21(28.0)	54(24.4)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18(12.3)	13(17.3)	31(14.0)		

\* $p<.05$ , \*\* $p<.01$ , \*\*\* $p<.001$



화(2001)의 가정교과는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남녀 학생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1$ )가 나타나 유상희(1992)의 '아주 중요하다'와 '중요하다'에서 여학생이 81.1%, 남학생이 81.7%를 보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중요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가정교과 수업시수의 대폭적인 감축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교과와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 학생의 326명(61.9%)이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녀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였다. 이 결과는 홍은정(1996), 황인화(2001)의 연구 내용과 유사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교과를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가정생활에 대한 체험적인 학습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가정교과의 목표와 성격을 잘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교과의 평균 성적은 401명(76.6%)이 70점 이상으로 나타나 황인화(2001)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고 남녀 학생간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교과의 선호도는 221명(41.9%)이 '좋아한다'고 하였고, 남녀 학생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습·실습이 많아서'가 34.0%로 나타나 '이해하기 쉽고 부담이 없어서'라고 한 이준임(1996), 황인화(2001)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 2) 식생활 단원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식생활 단원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식생활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식생활 향상을 위한 식품영양의 지식과 원리를 배운다'가 205명(38.8%)으로 나타났고, 남녀 학생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허경숙(2000), 최선정(2002)의 결과와는 일치하나, 최현덕(1999), 홍은정(1996)의 '식생활에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운다', 황인화(2001)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을 배운다'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과정상 이론위주의 단원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식

생활 단원의 선호도는 '매우 좋아한다'와 '좋아하는 편이다'가 328명(62.1%)으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성희(1980)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유의한 차이( $p < .001$ )를 보여 여학생들이 식생활 단원에 대해 더 높은 흥미를 나타냈고, 홍은정(1996), 최선정(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리실습이 좋아서'가 216명(65.9%)이었고, 여학생은 154명(71.6%), 남학생은 62명(54.9%)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1$ )가 나타났으며, 오현주(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되는 편이다'가 316명(59.9%)이었고, 남녀 학생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 )가 있어, 대체적으로 남녀 학생들에게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안혜경(1995), 홍은정(1996), 최현덕(1999), 황인화(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허경숙(2000)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여학생은 쉽게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으나, 남학생은 가정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쉽지 않고 주위의 여러 여건으로 실천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난 후 자신의 식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와 '관심이 생긴 편이다'에 236명(44.7%)으로 나타나 제 7차 식생활 단원의 교육효과가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태도의 변화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 단원을 배우고 난 후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나 남녀 학생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5$ )가 있었고, 이는 홍은정(1996), 최현덕(1999), 황인화(2001)의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식생활에 관심의 변화 정도가 높게 나타난 허경숙(2000)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변화된 점은 '간단한 조리 능력'이 274명(51.9%)이었고, 남녀 학생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로 '조리실습이 좋아서'와 변화된 점에 '간단한 조리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식생활 단원이 가정교과 단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3〉 식생활 단원 인식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N(%)

인식	내용	여학생	남학생	계	$\chi^2$
학습내용	영양지식과 원리	115(37.2)	90(41.1)	205(38.8)	3.837
	실질적인 기능 습득	105(34.0)	57(26.0)	162(30.7)	
	문제해결 능력	89(28.8)	72(32.9)	161(30.5)	
선호도	매우 좋아한다	56(18.1)	43(19.6)	99(18.7)	24.032** *
	좋아하는 편이다	159(51.5)	70(32.0)	229(43.4)	
	그저 그렇다	84(27.2)	92(42.0)	176(33.3)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6(1.9)	5(2.3)	11(2.1)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4(1.3)	9(4.1)	13(2.5)	
선호이유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10(4.6)	15(13.3)	25(7.6)	14.496**
	조리실습이 좋아서	154(71.6)	62(54.9)	216(65.9)	
	수업시간에 재미있게 배워서	9(4.2)	11(9.7)	20(6.1)	
	영양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서	27(12.6)	15(13.3)	42(12.8)	
	잘못된 식습관(편식, 과식, 결식)을 고칠 수 있어서	15(7.0)	10(8.8)	25(7.6)	
도움정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32(10.4)	17(7.8)	49(9.3)	10.399*
	도움이 되는 편이다	167(54.0)	100(45.6)	267(50.6)	
	그저 그렇다	92(29.8)	81(37.0)	173(32.8)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15(4.8)	12(5.5)	27(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0)	9(4.1)	12(2.2)	
식생활 관심정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38(12.3)	17(7.8)	55(10.4)	9.715*
	관심이 생긴 편이다	114(36.9)	67(30.6)	181(34.3)	
	그저 그렇다	114(36.9)	101(46.1)	215(40.7)	
	변화가 없는 편이다	35(11.3)	22(10.0)	57(10.8)	
	변화가 전혀 없다	8(2.6)	12(5.5)	20(3.8)	
변화된 점	영양에 관한 관심	59(19.1)	26(11.9)	85(16.1)	7.075
	간단한 조리 능력	160(51.8)	114(52.0)	274(51.9)	
	좋은 식습관	35(11.3)	25(11.4)	60(11.4)	
	아무 변화가 없다	55(17.8)	54(24.7)	109(20.6)	

\*p<.05, \*\*p<.01, \*\*\*p<.001

2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난이도, 활용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1) 필요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필요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남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인식은 청소년의 식사 3.95, 청소년의 영양 3.89,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3.8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여학생은 청소년의 식사 3.98,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3.95, 청소년의 영양 3.92 순으로, 남학생은 청소년의 식사 3.92, 청소년의 영양 3.86,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3.82 순으로 필요도를 인식하였다. 식생활 단원 전체와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남학생이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의 필요도를 낮게 인식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성역할 인식의 차이가 관습적으로 존재하

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여학생은 청소년의 식사 3.98,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3.95, 청소년의 영양 3.92 순으로, 남학생은 청소년의 식사 3.92, 청소년의 영양 3.86,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3.82 순으로 필요도를 인식하였다. 식생활 단원 전체와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남학생이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의 필요도를 낮게 인식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성역할 인식의 차이가 관습적으로 존재하

〈표 4〉 필요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영역	내용	여학생	남학생	계	t
청소년의 영양	영양과 건강	4.06±0.79	3.99±0.98	4.03±0.89	0.86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3.80±0.83	3.72±1.00	3.76±0.92	0.92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	3.92±0.85	3.88±1.02	3.90±0.94	0.41
	평 균	3.92±0.65	3.86±0.89	3.89±0.77	0.85
청소년의 식사	다섯가지 식품군과 식사 구성	3.81±0.88	3.75±1.01	3.78±0.95	0.70
	청소년의 식생활	4.13±0.86	4.08±1.00	4.11±0.93	0.62
	평 균	3.98±0.76	3.92±0.90	3.95±0.83	0.78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조리의 기초와 기본적인 조리 방법	4.00±0.86	3.80±1.00	3.90±0.93	2.39*
	조리에 의한 식품 성분의 변화	3.56±0.90	3.49±1.06	3.53±0.98	0.83
	음식 만들기	4.28±0.87	4.18±0.98	4.23±0.93	1.20
	평 균	3.95±0.68	3.82±0.77	3.88±0.73	1.92
전체 평균		3.94±0.53	3.86±0.71	3.91±0.61	1.45

\*p<.05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하위 영역별 필요도의 경향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고, 남녀간의 차이는 조리의 기초와 기본적인 조리방법의 하위영역에서만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의 내용은 실생활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필요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난이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난이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식생활 단원의 난이도 인식은 청소년의 영양 2.78, 청소년의 식사 2.70,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2.59 순으로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여학생은 청소년의 영양 2.82, 청소년의 식사 2.72,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2.55 순으로, 남학생은 청소년의 영양 2.74 청소년의 식사 2.67,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2.62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 전체에 대한 난이도는 여학생이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또한 청소년의 영양과 청소년의 식사, 남학생은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를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이는 최선정(2002)의 결과와 일치하며 여학생은 이론적인 면이 강한 분야를, 남학생은 실습이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 영역별 난이도의 경향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일하였고, 남녀 차이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음식 만들기에서만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즉,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은 여학생이, 음식 만들기는 남학생이 더 어렵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론이 중요한 만큼 이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3) 활용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활용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식생활 단원의 실생활 활용도는 청소년의 식사 3.28,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3.15, 청소년의 영양 3.0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남학생은 식생활 단원 전체에서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표 5〉 난이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영역	내용	여학생	남학생	계	t
청소년의 영양	영양과 건강	2.72±0.81	2.69±0.97	2.71±0.89	0.32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3.00±0.90	2.81±1.03	2.91±0.97	2.25*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	2.73±0.85	2.71±1.02	2.72±0.94	0.22
	평균	2.82±0.75	2.74±0.92	2.78±0.84	1.08
청소년의 식사	다섯가지 식품군과 식사구성	2.93±0.93	2.75±1.12	2.84±1.03	1.94
	청소년의 식생활	2.50±0.90	2.58±1.08	2.54±0.99	-0.93
	평균	2.72±0.79	2.67±1.00	2.70±0.90	0.60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조리의 기초와 기본적인 조리방법	2.50±0.96	2.56±1.04	2.53±1.00	-0.68
	조리에 의한 식품성분의 변화	2.92±0.93	2.87±1.10	2.90±1.02	0.56
	음식 만들기	2.23±0.96	2.43±1.22	2.33±1.09	-2.07*
	평균	2.55±0.77	2.62±0.93	2.59±0.85	-0.88
전체 평균		2.69±0.64	2.68±0.85	2.69±0.73	0.24

\*p&lt;.05

남여간의 차이는 청소년의 영양에서만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나, 남학생은 청소년의 영양과 청소년의 식사, 여학생은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에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최선정(2002)의 결과와 일치했다. 이는 여학생이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위 영역별 활용도의 남여 차이는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p<.05), '각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알고 식품을 선택할 때, 그 지식을 활용 한다'(p<.05), '자신이 하루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칼로리의 단백질 권장량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p<.05), '균형잡힌 식사가 되도록 5가지 기초식품군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한다'(p<.01), '같은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이라도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조금씩 다르므로 식품을 다양하게 배합해서 섭취한다'(p<.05),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 계량 기기를 사용한다'(p<.001), '가스렌지나 조리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p<.05), '음식에 따라 재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썰어서 조리한다'(p<.01)의 실천 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규칙적인 식사, 영양지식의 활용과, 계량기기의 활용도는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조리실습

과 관련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학생 모두 실생활에서 식생활 단원의 치우치지 않는 활용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차이를 개선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남녀학생 모두 청소년기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영양지식의 활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조리실습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필요도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므로 남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 3.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및 난이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 1)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의 상관성이 가장 높고 다음이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의 식사 순이었다. 식생활 단원의 각 영역별 필요도와 실생활 활용도는 모두 의미 있는 p<.001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표 6〉 활용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의 차이

실 천 내 용	여학생	남학생	계	t
청소년의 영양				
1.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3.48±1.13	3.69±1.10	3.59±1.12	-2.18*
2. 각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알고 식품을 선택할 때 그 지식을 활용한다.	2.77±0.95	3.00±1.08	2.89±1.02	-2.58*
3. 탄수화물과 지방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고 적절하게 섭취한다.	2.97±1.02	3.15±1.13	3.06±1.08	-1.94
4. 청소년기에 필요한 영양소의 함유식품을 알고 그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한다.	3.15±1.05	3.27±1.16	3.21±1.11	-1.24
5. 자신이 하루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칼로리와 단백질 권장량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2.51±0.99	2.75±1.21	2.63±1.10	-2.46*
평 균	2.97±0.74	3.17±0.88	3.07±0.81	-2.73**
청소년의 식사				
1. 균형잡힌 식사가 되도록 5가지 기초식품군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한다.	2.60±1.05	2.91±1.23	2.76±1.14	-3.05**
2. 같은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이라도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조금씩 다르므로 식품을 다양하게 배합해서 섭취한다.	2.75±1.01	2.97±1.12	2.86±1.07	-2.30*
3. 편식이나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3.70±1.05	3.59±1.20	3.65±1.13	1.11
4.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에 적어도 1번 이상 먹는다.	3.59±1.27	3.68±1.35	3.64±1.31	-0.80
5. 패스트푸드(햄버거 등)는 가능한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3.52±1.19	3.48±1.34	3.50±1.27	0.36
평 균	3.23±0.72	3.33±0.85	3.28±0.79	-1.33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1. 음식을 만들 때 조리순서를 정하여 능률적으로 한다.	3.31±1.10	3.40±1.15	3.34±1.13	-0.92
2.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 계량기기를 사용한다.	2.15±1.12	2.53±1.30	2.34±1.21	-3.55***
3. 가스렌지나 조리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4.19±0.95	4.01±1.05	4.10±1.00	2.08*
4. 음식에 따라 재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썰어서 조리한다.	3.77±1.05	3.46±2.24	3.62±1.65	3.05**
5. 식품에 따라 적당한 조리법(생조리, 가열조리)을 사용한다.	3.69±0.96	3.53±1.19	3.61±1.08	1.61
6.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적게 사용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한다.	3.23±1.12	3.27±1.19	3.25±1.16	-0.42
7. 음식을 만들 때 조리에 의한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2.94±1.08	2.93±1.20	2.94±1.14	0.15
8. 시금치를 데칠 때 선명한 녹색이 유지되도록 뚜껑을 열고 데친다.	3.25±1.31	3.07±1.30	3.16±1.31	1.55
9.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한다.	2.79±1.27	2.80±1.37	2.80±1.32	-0.12
10. 학교에서 조리 실습한 것을 집에서 만들어 본다.	2.67±1.34	2.57±1.38	2.62±1.36	0.82
11. 간단한 반찬 만들기를 한다.	2.85±1.35	3.05±1.33	2.95±1.34	-1.69
12. 혼자 힘으로 밥을 짓는다.	3.17±1.58	2.92±1.46	3.05±1.52	1.89
평 균	3.17±0.70	3.13±0.82	3.15±0.76	0.57
전체 평균	3.14±0.60	3.18±0.75	3.16±0.67	-0.74

\*p<.05, \*\*p<.01, \*\*\*p<.001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실생활에 활용하는 태도는 높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활용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현숙, 김귀남(1989)의 가정과 전반의 내용이나 식생활 영역에 대한 실생활 활용도는 필요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

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식생활 단원의 난이도와 활용도와의 상관관계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난이도와 활용도와의 상관관계는

〈표 7〉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필요도 \ 활용도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의 식사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청소년의 영양	0.265***		
청소년의 식사		0.262***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0.289***

\*\*\*p<.001

표 8과 같다.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의 식사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식생활 단원의 각 영역별 난이도와 실생활 활용도는 모두 p<.001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어렵게 인식할수록 실생활에 적용하는 태도는 낮아지며 부정적인 활용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생활단원의 실생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 연구 및 다양한 교재 개발 등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효과적인 학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가정교과의 학습내용은 '조리, 세탁,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배운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교과의 중요성, 가정생활과 가정교과의 관계, 가정교과의 선호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인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은 '식생활 향상을 위한 식품 영양의 지식과 원리를 배운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생활 단원의 선호도,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정도, 식생활 단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리실습이 좋아

〈표 8〉 식생활 단원의 난이도와 활용도의 관계

난이도 \ 활용도	청소년의 영양	청소년의 식사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청소년의 영양	-0.359***		
청소년의 식사		-0.261***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			-0.403***

\*\*\*p<.001

#### IV.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를 이수한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난이도, 실생활에서의 활용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식생활 단원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라는 인식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인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둘째,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청소년의 식사 영역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청소년의 영양 영역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이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다. 실생활의 활용도는 필요도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의 식사 영역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교과 및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집단이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와 활용도가 높았고, 부정적인 집단이 식생활 단원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가 높을수록 실생활 활용도가 높았으며, 식생활 단원을 어렵게 인식할수록 실생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있어 남학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와 교재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론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필요도가 낮고 어렵게 인식하고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며, 활용도에서는 남학생이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 남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식생활 교육이 요구된다.

3. 식생활 단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실생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의 수업방식은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이론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실험·실습 등 실생활과 관련시키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의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영희(1999). 남녀 중등학생의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과 조리실습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영자(1990).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식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현숙, 김기남(1989). 가정과 교육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1), 19-31

고혜란(2001). 식생활단원 교육이 중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식품관 및 TV 식품 광고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교육부

구정희(1989). 중학교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및 실행에 관한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가경(2004). 제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의 여중생의 중요도, 난이도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아(1997). 서울시내 남녀 중학생들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현(1976). 중학교 가정과 학습지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숙(2005). 가정과 수업의 웹 콘텐츠 자료 활용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순애(1993). 고양시 여고생들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연숙(1994).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학습태도 및 학습내용의 활용.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윤정(2002). 제 7차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주(1984). 가정과 학습 내용에 대한 여고생의 관심도와 활용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옥(1997). 학교유형에 따른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 학습시느낌점 및 학습 내용의 활용정도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현, 최주현, 이민준, 문수재(1998). 서울일부 지역 중학생의 식행동 특성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2), 293-298

나영주(1985). 남녀 중학생의 영양지식에 대한 관심도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희경(2000). 농촌 남녀 중학생의 영양소 섭취, 식행동과 체형 인식에 관한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6(2), 280-288

문난희(1989).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중 식생활 교육의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민경(2002).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 단원 내용 분석 및 교육의 효과.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덕(2002). 남녀 고등학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태도와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인영(2004). 기술·가정 식생활 단원의 교육전후 중학생들의 영양지식 및 식행동 비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중순(2003). 청소년기 중학생들의 영양지식, 식생활 태도 및 식품에 대한 기호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순복(1997).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음식의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명순(1998). 중학교 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광희(2003). 초등학교 교사들의 실과 가정영역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선지현(1999). 광주시 중학생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영용(1971). 가정과 조리 실습 교육에 관한 일 연구(여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계수, 신동순(2001). 경남지역 일부 도시와 어촌 중학생의 영양소 섭취 및 식습관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6(3), 271-281
- 안혜경(1995). 남녀 중학생의 식사행동과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 가정교과서의 식생활 단원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금향(1992). 여고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및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은숙(1989). 서울시내 여자 고등학생들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현주(1996). 인천시내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상희(1992).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관련 변수.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순자(1985). 여고생의 식습관과 학습의욕 및 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여량(1991). 중학생의 식사행동, 영양지식 신체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숙(2002). 중학생의 가정교과 내용의 필요도 인식과 가족생활 가치관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가영(1998). 삼척시 중학생의 가정과 학습내용 흥미도와 식사행동과의 상관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건순(1996). 농촌 청소년의 식품기호, 식생활 행동 및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희(2000). 남녀 중학생의 식생활 관리에 대한 관심도 및 실행능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희(1990). 가정학 교육의 교과 내용 및 남녀 공통 이수율의 인식에 관한 연구(여자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미, 한명숙(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식생활 행동과 영양지식에 대한 실태 연구(성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11(3), 305-316
- 이윤화(2001). 식생활단원 내 식문화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중학교 1학년 식생활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희(1997). 중·고등학교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교육의 강화 방안. **교육문제 연구**, 262-275
- 이은정(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준임(1996). 제 6차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흥미도와 실생활 적용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림(2000). 중학생의 식생활 행동과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의 관련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찬경(1986). 가정과 학습 내용에 대한 여중생의 관심도와 활용정도에 관한 연구(부천시와 서울시 공·사립 여중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수경(2003). 남자 중학생의 가정교과 인식 및 가정교과 영역별 요구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애용, 윤인경(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73-92
- 정혜경(1985). 대전시 사춘기 여학생의 식습관 조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강영(1993). 남녀 중학생의 식생활 행동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명춘(1989).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여중생의 인식과 학습 성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여원(1986). 도시남녀 중·고등학생의 식생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미(1995). 남녀 중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와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정숙, 손원교(1982).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 공주사대 논문집 제20호, 175
- 최경자(1982). 서울시내 여고생들의 환경과 영양지식이 영양섭취 실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정(2002). 전북 일부지역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 요구도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희(1980). 전라북도 중학교 가정과 식생활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덕(1999).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식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점순(1994). 식행동이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내 일부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백란(1985). 서울시내 초·중학생들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혜숙(1992). 남녀 중학생의 가족영역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도 흥미도 실생활 적용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경숙(2000).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기순(1984). 식생활 관리. 교문사
- 홍순정(1984). 남녀 중고생의 식습관 및 기호도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은정(1996).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학생들의 가정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은선(1992). 가정과 식생활 단원 학습내용에 대한 여중생의 학습목표 성취도와 흥미도 및 실천정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인화(2001).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희순(1998). 고등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요구도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를 이수한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가정교과와 식생활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난이도, 실생활에서의 활용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식생활 단원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과 학습내용의 인식은 '조리, 세탁,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배운다'(38.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건전한 생활 이념과 올바른 인간 형성에 관한 것을 배운다'(27.5%)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습내용의 인식은 '식생활 향상을 위한 식품 영양의 지식과 원리를 배운다'(38.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을 배운다'(30.7%)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는 청소년의 식사(3.95), 청소년의 영양(3.89),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3.88) 순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며 식생활 단원 전체와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난이도는 청소년의 영양(2.78), 청소년의 식사(2.70),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2.59) 순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여학생이 식생활 단원 전체를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소년의 영양과 청소년의 식사를, 남학생은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를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실생활의 활용도는 청소년의 식사(3.28),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3.15), 청소년의 영양(3.07) 순으로 필요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남학생이 식생활 단원 전체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청소년의 영양과 청소년의 식사를, 여학생은 조리의 원리와 음식 만들기가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 및 난이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는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의 필요도가 높을수록 식생활 단원의 모든 영역의 실생활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어렵게 인식할수록 식생활 단원의 모든 영역의 실생활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5년 8월 12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9월 10일